

합격기

[제55회 행시 국제통상직렬]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민 한 빛

- 부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55회(2011년) 행시 국제통상직렬 합격

I. 들어가며

저 혼자서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지도 않았고, 글재주도 없음에도 합격수기를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국제통상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초심자와 논문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II. 수험기간

2008년 8월, 졸업과 동시에 IBM 재무관리본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졸업 전 진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저는 회사에 입사한 뒤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몇 달 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200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결정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정고시 준비는 2011년 11월 22일 최종발표와 함께 비로소 끝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

행정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신림동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시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카페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공부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2차 시험을 중심으로 공부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족한 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지속적인 수정과

정을 거쳤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2순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시간적 유연성을 활용하여 가장 부족한 과목인 국제법과 행정법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행정법1, 행정구제법, 국제법1 과목을 수강하여 부족한 법적인 사고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2010년

PSAT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 1개월 정도를 PSAT에만 투자하였습니다. 매일 4세트의 피셋모의고사를 풀면서 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 운이 좋게도 1차에 합격을 하였고 처음으로 2차 시험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실력이 부족했던 저는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3순환을 통해서 답안지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3순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고,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차 시험에 임하면서 모든 과목을 10장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력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아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10장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합격선에서 평균 2점이 부족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음 해에는 한 번 해볼 수 있겠

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2011년

PSAT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에 수립한 전략과 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1년에는 하루 1~2세트 정도의 피셋모의고사를 풀고 남은 시간은 2차 공부에 투자하였습니다.

2차 시험을 위한 계획도 철저하게 제 수립하였습니다. 학원강의를 최대한 줄이고, 답안지작성 연습은 스터디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3순환 실강은 국제법만 수강하였고, 다른 과목의 경우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였습니다.

답안 작성도 10장을 채우기보다는 정확하고 보기 좋게 작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8~9장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대신 답안을 더 잘 작성하기 위한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II. 공부방법

1. PSAT

PSAT이 어려운 시험임은 분명하지만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PSAT에서 평균 60점정도 였으나 2010년도 PSAT에서 평균80점 이상으로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 상승에 있어서 가장 주효했던 것이 PSAT시험에 대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PSAT을 준비하면서 매일 4세트의 피셋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자신

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해문제, 범조문 해석문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논리문제, 퀴즈문제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약한 부분인 논리문제, 퀴즈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독해문제, 범조문 해석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유형화하여 문제 유형별 소요시간 및 정답률을 파악하여 소요시간이 짧고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우선하여 푸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셋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문제를 선별하여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문제나 퀴즈문제는 리뷰를 하지 않았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PSAT의 경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2. 논문과목

(1) 답안작성

논문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에 못지않게 아는 것을 답안지에 현출해내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아는 것을 답안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연구하는 것이 정답

입니다. 과목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합격점수 이상의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답안작성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력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답안작성 시에 정확한 조문·판례의 적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문스터디, 판례스터디 등을 통해 암기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동시에 꾸준한 답안작성스터디를 통해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답안작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저는 글을 쓸 때 힘을 많이 주고 쓰는 편이어서 답안작성 시 힘이 많이 들고 답안작성 속도도 느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온 많은 펜들을 써보며 최적의 펜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였고, 글씨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답안작성을 위한 목차작성, 답안구성방법, 제목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한편 답안작성과 관련해서는 답안작성 시 교과서를 참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항상 스스로의 힘으로 답안작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3순환 기간 중에는 사전에 예습을 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또한 3순환 기간에도 예습을 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국제법

1) 국제법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은 국제통상직 전체 논문과목 공부양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국제법은 행정법과 같이 하나의 일관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보다는 암기가 더 중요시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의 틀을 잡기 위해서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을 10회독 가량하였고, 각 장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를 선정하여 책에 참고자료로 붙여 놓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조문·판례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학원강의와 관련해서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안진우 선생님의 1순환, 3순환을 들었습니다. 안진우 선생님의 장점은 특정 국제법 각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1년에는 백승호 선생님의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백승호 선생님의 장점은 국제법 전체의 체계를 잘 잡아주며, 자료가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2) 국제경제법

국제경제법은 국제법에 비해서 비교적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경제법 역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문과 판례에 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막대한

분량의 조문 및 판례로 인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조문 및 판례의 암기를 위해서 꾸준하게 암기스터디를 하였고, 답안작성 스터디를 통해서 조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의 틀을 잡기 위해서 국제경제법 공저를 중심으로 성재호 교수님의 국제경제법을 회독하였습니다.

학원강의와 관련해서는 백승호 선생님의 3순환 강의와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을 정리하였고, 정성주 선생님의 3, 4순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3) 행정법

국제통상직렬의 경우 언어과목 및 국제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행정법에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기 위한 행정법 공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1차 시험 기간 및 2차 시험 기간 동안 김연태 교수님 사례집, 박균성 교수님 사례집, 이재화 사례집, 김정일 선생님 사례집을 하루에 한 사례씩 읽어 봄으로서 행정법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3순환 강의를 듣는 대신 류준세 선생님의 박균성 교수님 사례집 강의를 들으면서 박균성 교수님 사례집을 중심으로 답안 작성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4)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국제통상직렬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효과적인

답안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이 국제경제학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경제학은 논문과목 중 거의 유일한 경제학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의 경우 인터넷으로 황중휴 선생님의 2순환 강의와 김진옥 선생님의 3순환 강의를 수강하였고, 국제경제학 ZIP, 국제경제학 Practice Book을 답안의 개요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모두 풀어보고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5) 영어

영어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고득점도 가능하므로 논문과목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과목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내파였으므로 영어에서 평균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매일 영어스터디를 통해서 번역연습을 하였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를 위해서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선택과목

선택과목으로 제2외국어 대신 논문과목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수험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논문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제2외국어 선택에 비해서

10점~20점 정도의 점수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어, 국제법, 행정법, 국제경제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논문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제2외국어에 투자할 시간을 다른 논문과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제2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험기간이 2~3년이 요구되지만 논문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논문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단점은 2차 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4과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3과목을 정리해야 하는 제2외국어 선택자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점과 선택과목에서 10~20점의 점수 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비교衡量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3차면접

(1) 스터디

2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카페를 통해서 즉시 면접스터디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스터디원 모두가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스터디를 하셔야 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서로 친한 스터디의 경우 자료공유가 활발하고 피드백이 원활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협상

국제통상직렬의 경우 집단토론이 협

상으로 진행됩니다. 협상관련 면접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습 시에 스터디에서 직접 만들어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자료의 경우 다른 스터디와 공유하면서 협상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합격자의 도움을 받아서 협상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스터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자가 없지만 2011년의 경우 면접에서 사회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연습할 때 사회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상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습하실 때도 창의적인 대안이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내셔서 협상에 적용하신다면 더욱 원활하게 협상을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IV. 기타사항

1. 긍정적인 마음과 체력관리

장기간의 수험기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체력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긴 수험기간 동안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좋으니 항상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체력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 수영, 요가를 번갈아가면서 했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였습니다. 2차

막바지인 6월에도 매일 혹은 격일로 운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에 월회수목금금금의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었고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5월, 6월에 큰 무리 없이 힘든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시험을 보는 일주일동안 총 10시간 정도만 수면을 취해서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했지만 그동안 쌓은 체력과 흥삼, 에너지드링크, 영양제를 활용해서 일주일간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즐기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저는 항상 제가 세웠던 전략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있었기에 1차 시험을 볼 때는 그동안 접했던 모강보다 훨씬 더 문제가 좋은 PSAT문제를 즐겨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2차 시험도 체력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교수님께서 출제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답을 해보는 것을 즐겨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청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신다면 어찌면 힘들 수도 있는 이 여정이 조금이나마 즐거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상컨대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마음이 생길 때면 항상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 Plan B

저는 회사를 퇴사한 뒤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11년 2차시험 이후에는 예비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항상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행정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통해서 고시생활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수험생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행정과 재경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대학원이 주관하는 스터디에 참여하여 합격생으로부터 많은 조언도 얻었고, 무엇보다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험적인 측면 이외에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는다면 고시공부로 인한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입학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기업, 공사

공기업과 공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중요하므로 재경직과 일반행정을 준비했던 수험생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공사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통과를

위해서는 토익점수, 학점, 자격증 등이 요구되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2010년과 2011년에 토익, 토익스피킹, 토익라이팅 점수를 만들었고 2011년에는 자격증 세 개를 취득하여 서류합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면접을 예금보험공사는 필기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V. 맺음말

제 수기가 초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통상직렬의 경우 수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문과목선택인 후기는 더욱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제가 이 글을 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논문과목을 선택하였고, 수험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국제통상직렬 수험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문과목 선택 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논문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소수의 인원이 논문과목을 선택하여 합격을 하는 만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험생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